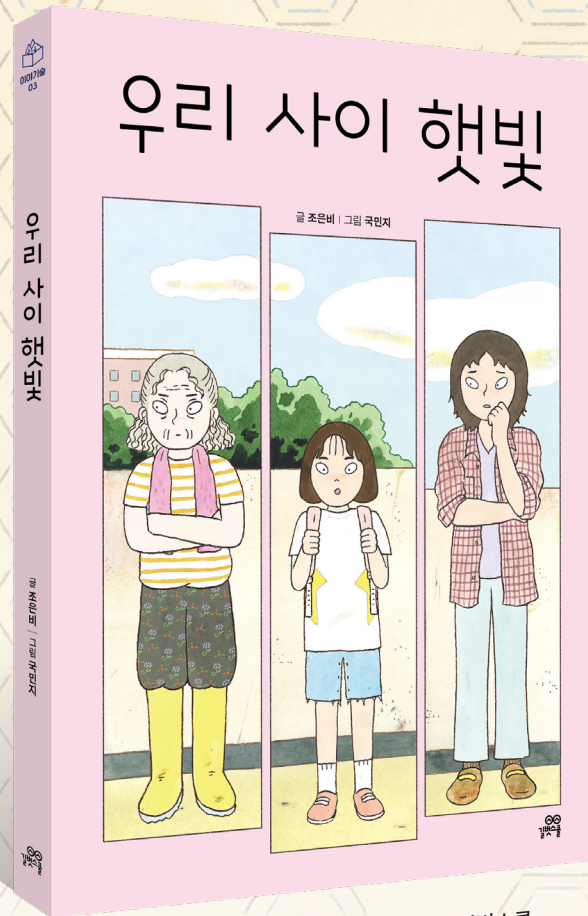


우리 사이 햇빛

독후활동지



조은비 글 | 국민지 그림 | 184쪽 | 길벗스쿨



“우리 사이에도 별들 날이 올까?”

남남보다 나은 가족이 되고 싶은 세 모녀의 좌충우돌 일주일!

혜준은 엄마의 부탁으로 여름 방학 일주일간 할머니 집에 있게 된다. 항상 무표정에 쌀쌀맞은 할머니와 일주일이나 함께 해야 한다니! 할머니 걱정해 잠 못 이루는 엄마와 그런 엄마에게 무심한 할머니, 엄마의 온전한 관심이 필요한 혜준까지. 가족이어서 이해할 수 없고, 가족이기에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세심하고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작품이다.

초등 교과 연계 단원

3-공통 도덕 3. 함께하는 우리 가족 4-1 국어 10. 인물의 마음을 알아봐요 4-1 국어(개정) 1. 깊이 있게 읽어요
4-2 국어 1. 이어질 장면을 생각해요 5-1 국어 1. 대화와 공감 5-공통 도덕 2. 내 안의 소중한 친구 6-2 국어 1. 작품 속 인물과 나

*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, 상업적 용도와 무단전제와 무단복제 및 2차 배포를 금합니다.

활동 1 책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세요.

1. 혜준이는 왜 할머니 집에 가게 됐나요?

할머니의 말동무를 해 드리라는 엄마의 부탁 때문에

2. 혜준이는 왜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했나요?

할머니 집에는 할머니가 있으니까. 할머니와 친하지 않아서.

3. 혜준이가 할머니 집에 가는 대신 엄마에게 받기로 한 것은 무엇인가요? ①비행기표

① 비행기표

② 용돈

③ 숙제 면제권

④ 핸드폰

4. 엄마가 할머니를 걱정하는 이유를 적어 보세요.

큰이모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오래 살아서 뭐 하냐는 이야기를 계속해서

5. 은채가 혜준이에게 가져다 준 음식은 무엇인가요? ②깻잎 페스토

① 바질 페스토

② 깻잎 페스토

③ 토마토 소스

④ 깻잎

6. 혜준이가 은채를 대신해 밭에 심은 씨앗은 무엇인가요? ①수박씨

① 수박씨

② 토마토씨

③ 당근씨

④ 깻잎씨

활동 2 등장인물의 마음을 헤아려 보아요.

1



도어 락이 고장난 날, 혜준이는 왜 은채 집에 가는 걸 망설였을까요?
혜준이의 입장이 되어 적어 보세요.

은채와 어색해서. 예전에 은채가 혜준을 찾아왔을 때 집에 없는 척한 적이 있는데, 그 사실을 은채가 알아버려서 머쓱하고 뻘쭘했을 것 같다. 혼자 있는 게 더 편했을 것 같다.

2



혜준이가 자기를 피한다고 생각한 은채는 기분이 어땠을까요?
은채의 입장이 되어 적어 보세요.

서운하고 혜준이 조금 미웠을 것 같다.
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을 것 같다.

3

혜준이와 은채는 헤어지기 전, 에스엔에스 아이디를 주고받습니다.
둘은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나눴을까요? 대화를 상상해서 빈칸을 채워 보세요.



은채야 잘 지내?
나는 집에 도착했어. 수박씨 소식 종종 알려 줘. 할
머니 집에 또 놀러가면 같이 밭에 가자.

그래 좋아!
수박씨는 아직 소식이 없어.
얼른 또 같이 놀고 싶다.
별이 또 찾아오면 소식 전할게.



활동 3

책 속에는 가족 5명이 등장합니다. 등장인물 중 나와 가장 성격이 비슷한 인물을 적고,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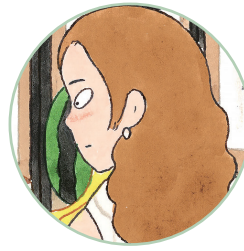
혜준



혜나



엄마



이모



할머니

● 나와 가장 비슷한 인물

혜나

●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

나도 동생에게 쌀쌀맞고 동생을 잘 챙기지 못했던 거 같다. 엄마에게 투정을 많이 부렸던 거 같다. 짜증 내는 모습이 혜나와 닮았다.

활동 4

혜준이처럼 엄마나 다른 가족에게
서운한 감정이 생길 때가 있나요?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?

1.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, 그 이유는?

나는 가족 엄마 가 비교 할 때
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.
그 이유는 비교당하면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어지기 때문입니다.

2. 그럴 때 내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?

엄마에게 기분 나쁜 이유를 말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.

활동 5 책 제목의 의미를 유추해 보고,
내가 작가라면 어떤 제목을 지었는지 적어 보세요.

● 《우리 사이 햇빛》 책 제목의 의미

별뿔마을 아파트에서 '별뿔'가 틈사이로 비치는 햇빛이라는 뜻인 것처럼,

엄마와 혜준, 그리고 할머니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뜻할 것 같다.

세 명 사이로 따뜻한 햇빛이 비치면서 서로 화해하게 되는 의미 아닐까?

● 내가 지은 책 이름

● 그렇게 지은 이유